사회과학의 철학 :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Chapter 13 - Interpretation and the Sciences of Man, *Charles Taylor*

담당교수 : 이상욱 | 발제자 : 정동욱 | 날짜 : 2004.5.19

해석이란?

연구대상의 뜻이 명확하게 통하게 하려는 시도

'해석학적' 과학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해석학적 과학의 객체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둘째, 그 의미는 그것의 표현과 구분가능해야 한다.

셋째, 그 의미는 주체를 위한, 또는 주체에 의한 것이다.

해석에 관련된 쟁점은?

성공적인 해석은 모호하게 표현된 원래의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충분하다. 이는 '해석학적 순환' 때문이다.

해석학적 순환 : ① 만약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text를 이해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반복이 될 수 있다. ②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에 달려있고,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다시 전체에 의존한다.

해석학적 순환의 회의적 결론 :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 직관이 틀릴 수도, 내가 착각의 순환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음.

순환을 깨기 위한 시도 : ① "합리주의적" 방법. (Hegel) 전체에 대한 완벽한 이래를 통해 내적 완결성 추구함으로써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 순환을 "깨는" 방법은 아님. ② "경험주의적" 방법. (logical empiricist) 순환을 깨기 위한 진짜 시도임. 더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없이 타당한 원초적 사실(brute data)로부터 지식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이러한 경향은 해석에 기초한,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에 직면하는 질문취향에 적대적임.

인간의 과학이 해석학적 과학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상세한 답변을 위한 전제 - 경험적 의미는 ① 주체를 위한 ② 어떤 것의 ③ 맥락에서의 의미이다.

인간의 행동은 해석학적 과학의 대상이 된다. ① 행위(action)로서의 인간행동은 의미가 있다. ② 인간행동의 의미는 그 표현과 구분된다. (의미, 영역, 표현의 복잡한 상호관계. 자기-해석적 동물로서의 인간. 하나의 의미에 대해 1,2,3단계의 (표현이 다른) 해석 가능. 즉자적인 이해보다 더 명확한 해석 가능. 해석학적 과학은 상술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 해석 제공함.) ③ 이러한 의미는 주체를 위한 것이다.

경험주의적 전통의 정치학과 그에 대한 반론 1

경험주의적 경향은 심리학에서와 같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원초적 사실의 식별을 요구한다. 정치학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이 '행동'이다. 그들에 의하면 ① 행동은 물리적 기술 또는 제도와 관습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기술에 의해 식별되는 행동이며, ② 행동은 개인의 믿음, 태도, 가치 등의 주관적 실재를 포함한다.

반론 1. 이러한 경향은 상호주관적이거나 공중의(common) 의미에 의해 특징지워진 사회적 실재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가 된다. 어떠한 관습(예-협상)이 작동하는 문명을 고려하면, 그 관습은 그 문명의 구성적 규칙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행위자가 자신과 다른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를 다루는 그러한 정의는 원초적 사실(brute data)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이해는 상호주관적 의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론 2. 공유된 주관적 의미(신념 또는 가치의 수렴으로서의 합의)와 상호주관적 의미는 차이가 있으며, 상호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재반론.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상호주관적 실재를 원초적 사실로 식별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입증불가능한 모델이다. 상호주관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개념적 망으로 모든 사회를 다룰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현대의 비교정치학과 그에 대한 반론

사회간의 상호주관적 의미의 차이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사회를 자신의 범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회보다 더 적은 강제에 의존하면서 자발적인 응집성을 가지는 사회에 대해, 현대 주류 정치학이 다루는 "적법성" 개념을 도입한다. "적법성"은 '기술적인' 의미가 아닌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적법성"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의미를 다룬다.

립세(Lipset)은 안정성의 결정인자로서 효율성과 적법성을 도입한다. 효율성은 기계적으로 계산되며, 적법성은 (개인들의) 평가적인 믿음이다. 적법성의 위기 유형 중 하나인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새로운 산업체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복종'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회의 여러 기능이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되어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되었고,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유지된 이유는 (주류 사회과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협상에 기초한 사회생활의 개념에 맞게 잘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규모의 상호의존적인 노동의 형태는 사람의 머리 속 생각뿐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실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전통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문화(정치학)에 반대하는 세속적 정치학 필요성.

주류 정치학의 폐해는 특히 현재의 불안, 위기를 설명할 때 나타난다. 상호주관적 의미를 배제하는 주류정치학은 심각한 형태의 저항에 대해 '정신병(불합리)의 전염'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결론

인간의 과학에서, 우리는 해석학적 순환에 있으며, 우리는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석학적 과학은 직관들의 차이에 직면한다. 해석학적 과학에서는 오류 뿐만 아니라 착각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한편, 해석학적 과학이 의존하는 인식론적 관점이 옳다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가진다.